

# 윤 대통령 “청년들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

### 수석비서관회의 주제...고용부, 단체협약 고용 세습 유지한 기업 입건 다음달 취입 1주년...집무실 앞 어린이 정원 개장 등 별도 기념행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테마를 '변화'로 설정하고 관련 메시지와 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주제로 달린 나라의 모습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산 대통령실과 맞닿은 주한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탈바꿈해 일반 시민들에게 개

방하는 행사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전경을 바라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까지 직접 볼 수 있는 장소에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바닥 분수’도 새로 설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미래 세대가 마음껏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원 개장을 기념한 유소년 체육대회도 예정돼 있다. 토너먼트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이미 여러 팀 참가 신청을 받아둔 상태.

다른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야구와 축구대회를 열 것”이라며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대회들을 정례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행사도 별도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전부터 청와대 본관과 부속건물, 정원 등을 ‘청와대, 국민 품으로’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근무했던 청와대라는 공간의 역사성을 고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국민께 돌려드립니다’라는 테마로 행사를 준비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를 역사·문화·자연 복합 공간으로 꾸며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1년 만에 청와대 일대가 매력적인 관광지로 변했다”며 “전시와 공연 등으로 품격 있는 공간을 가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멀어지는 ‘국힘 지도부-홍준표’

### 당 상임고문직 해촉 이어 “공개발언 자제하라” 경고장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듯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전격 해촉한 데 이어, 나흘이 지난 17일까지도 그를 향한 지도부 등의 발언에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홍 시장은) 당의 원로이시고 당 대표 두 번이나 역임하신 분이니 국민들에게 정확히 실상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며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두고 김기현 대표가 “그쪽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여러 차례 선을 그였는데도, 홍 시장이 연일 전 목사와 엮어 지도부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지도부가 전 목사의) 눈치나 보고 있다”, “거기(전 목사)에 빌붙어 최고위원이나 당 간부 하려고 설치는 사람이 당을 운영해서 되겠느냐”는 식의 발언을 이어왔다.

홍 시장의 상임고문직 해촉은 이 같은 일련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지도부의 공감대에서 나왔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홍 시장을 향해 “지방자치행

정에 전념해달라”, “과도한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홍 시장이 자신과 정치적 연이 깊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전광훈 우파 통일’ 발언 등을 지렛대 삼아 공격하려 하고, 지도부가 이에 미온적인 자세가 지니친 연사를 쏟아낸다는 인식이 지도부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당 대표에게는 (당원) 정계 권한이 없다”며 “김기현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할 건 다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김 최고위원에 한 달간 근신하도록 하고, 공식적으로 정계 권한을 가진 윤리위원회를 꾸린 것 등을 두고 한 말이다.

홍 시장은 자신을 향한 지도부나 당내 여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갈 태세다.

당 소속 지지체제 중에서 이처럼 중앙정치나 당내 현안에 대한 ‘훈수’를 멈추지 않는 인사는 홍 시장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는 한때 좌고우면하지 않는 발언으로 경쟁 정치인들로부터 ‘말 잘 듣는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까지 달았던 그의 성격에 더해, 자기 대권에 재도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부정평가 63.4% ‘지지율 빨간불’

### 리얼미터 33.6%...국민의힘 33.9%·민주당 48.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개월 만에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를 의뢰로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p) 하락한 33.6%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3월 5주째에 한 차례 소폭 반등을 제외하곤 줄곧 하락세를 그렸고,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3주 32.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4%p 오른 63.4%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70대 이상(2.1%p ↑), 가정주부(4.2%p ↑), 학생(4.4%p ↑) 등에서 주로 올랐다.

부정 평가는 서울(6.5%p ↑), 광주·전라(5.4%p ↑), 대구·경북(3.1%p ↑), 60대(7.9%p ↑), 30대(7.2%p ↑), 50대(3.1%p ↑) 등에서 주로 올랐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4.2%p ↑), 진보층(2.6%p ↑), 중도층(2.2%p ↑) 모두에서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1%p 내린 33.9%,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2.9%p 오른 48.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격차는 지난 주 8.9%p에서 14.9%p로 크게 벌어지며, 5주째 오차범위 밖 격차 보였다.

정의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3%p 내린 3.4%, 기타 정당과 무당층은 각각 0.3%p 내리고 1.0%p 오른 1.8%와 12.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김기현, 국힘 주요 당직자·대변인단 임명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중앙당 윤리위원장·당무감사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대변인단을 임명하면서 ‘외연 확대’를 위한 역할 등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오전 국회당 대표실에서 중앙당 윤리위원장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 당무감사위원장을 맡은 신의진 전 의원을 비롯해 김가람 신임 청년대변인과 부대변인 13명 등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최춘식 중앙연수원장, 손인준 여성위원장, 이종성 장애인위원장, 송주범 지방자치위원장, 정동만 대외협력위원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이재영

국제위원장, 정희용 재해대책위원장 등도 임명장을 받았다.

김 대표는 “중앙당 산하 위원회와 대변인단은 당의 내장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각각의 장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각자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 우리 당이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민생 정당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 윤리위원회를 거론, “어떤 조직이든 간에 윤리 의식이 결여되면 (조직이) 계속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 대인동 신안동 상업용지, 매매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

문의. 010-3605-5000